

學問과 生活

哲學의 濫尊觀念에 抗하여 (2)

金午星

우리의 注意와 關心이 맞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驚異를 느낄 것인가? 우리가 어떤 對象에서 驚異를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의 實際 生活과는 떠난 對象物 自體가 가튼 美와 價値의 發見 또는 玩賞에서라고 생각게 되는 것은 그 對象物이 우리의 生活에 너무도 至大하고 普遍的인 利害關係를 갖고 있으며, 우리의 實生活 全體에 浸透되어 있는 까닭에 그 어느 것을 꼬집어 낼 수 업는대서 그것이 우리의 生活과 利害關係가 잇슴을 오히려 意識치 못하는대 不過한 것이다. 이 事實은 우리가 哲學의 始初를 다시 反省해 보는대서 確說될 것이다.

哲學의 祖上들이 天體의 神秘에 驚異를 갖게 된 것은 그들이 天體의 美와 價値를 無垢하게 玩賞함으로써가 아니고, 오히려 그들의 生活에 至大한 關係가 잇슴에서인 것이다. 哲學의 發祥地는 누구나 아다시피 希臘의 殖民地 이 오니아의 마레도스[밀레토스]市이다. 타-레스[탈레스]도 殖民의 한 사람이였다. 希臘 本土의 人口問題, 食糧問題를 解決키 爲한 殖民地 開拓은 그들 殖民으로 하여금 本土에서는 가져보지 못하던 生活力의 旺盛을 가져왔다. 그들의 唯一의 慾望은 生活資의 豐獲에 잇섰다. 그런대 海岸을 地盤으로 한 그들의 生活은 耕作과 航海(外地와의 通商을 爲한) 旅行에 依하여 營爲되었든 것이니, 그들의 이러한 生活 態度는 必然으로 星座와 天體의 運行, 變化 등이 그들에게 最大의 關心을 일으켰든 것이다. 프라-톤[플라톤]이 哲學의 動機로서 指摘한 驚異란 實際에 잇서는 이러한 實生活의 關心 때문에 생겨진 驚異였든 것이다. 그러타고 하면 自己의 발뿌리 압의 일을 몰랐다는 타-레스의 自然研究가 오히려 當時의 希臘 殖民地의 百姓들의 實際 生活의 關心에서 出發한 것임이 틀림이 업슬 것이다.

그러면 少女 도라-카[트라키아]는 어째서 天體의 秘密을 探察하는 타-레스를 嘲笑했나? 그리고 타-레스가 當時 希臘 殖民地의 百姓의 生活要求를 哲學적으로 遂行했다면 타-레스를 嘲笑한 도라-카는 무엇을 象徵함일까? 나

의 생각으로는 이 傳說이 傳說로서의 根據가 잇슬진댄 그것은 타-레스 當時의 事實이 아니고, 그뒤의 일은바 希臘哲學의 第二期인 人間論期에 와서 소피스트들에 依하여 지여진 것이라고 보여진다. 紀元前 七世紀頃에 起源한 希臘哲學은 五世紀頃에 일으려는 自己 轉換의 한 契機를 가지게 되었다. 殖民地와의 統一이 完成된 뒤로 希臘의 強化는 黃金時代를 일어노하 文化的 □□한 發展을 보혀주게 되었스니, 그들 文化人은 이제 와서는 天體의 神秘 가튼 대 驚異의 눈을 번득일 幼稚한 程度를 버서 낫든 것이다. 여기서 哲學은 自然探求로부터 地上의 現實 또는 人間의 現實을 探求하기여 일으켰스니, 自然哲學으로부터 人間哲學에의 轉機가 지여진 것이다. 소피스트[소피스트], 소크라테스 등의 哲學이 그것이다. 少女 도라-카는 이들 人間哲學을 代言한 것이니 人間哲學者들이 오직 自然만을 研究의 對象으로 하는 타-레스 등을 嘲笑했슬 것은 當然한 일일 것이다. 여기서 우리는 自然哲學이 當時의 殖民들의 自然과의 鬪爭의 必要에서 생긴 것이라면, 少女 도라-카가 代言한 人間哲學은 奴隸의 勞働剩餘物의 基礎 위에서 安逸한 生活을 營爲하는 貴族層의 內的 生活의 要求에서 일너진 것임을 理할 수 잇슬 것이다. 實際에 잇서는 哲學의 出發을 無垢한 驚異와 好奇心에서 찾는 프라-톤[플라톤] 自身の 哲學도 當時의 貴族層의 生活關係를 地盤으로 하고 構案되었든 것이니, 頹廢해가는 貴族的 民主政治를 아덴[아테네] 青年들의 論理的 自覺에 依하여 維持하려든 그의 師父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아덴 市民에게 『青年을 誘惑한 者』, 『神秘를 冒瀆한 者』란 誤解의 罪名 미테서 毒盃를 마신 것을 目睹한 프라-톤은 自己의 哲學的 信念인 『理想國家』를 實現해 보이려고 시게리아島를 三次나 訪問하였든 事實로 보아서도 그의 哲學이 얼마나 現實的 關心과 意慾에 불타고 잇었는가를 짐작할 수 잇는 것이다. 그의 理想哲學도 結局은 當時의 문혀져가는 貴族制度를 붓잡으려는 奴隸 所有層의 이데오로기-에 不過했든 것이다. 偉대한 古典哲學의 大成者 프라톤도 自己의 哲學이 當時 希臘 現實의 地盤에서만 成立될 수 잇었음을 自覺치 못했든 것이니, 여기서 그는 哲學을 非現實的인 것으로 錯覺하였든 것이다.